

“농산어촌 작은 학교 장점 살려 다각적 정책 추진”

전남교육청, 현장 찾아 소통 행정
기초학력 증진·다문화교육 활용
김대중 교육감 “지역사회연계 지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 미래교육의 기반인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김대중 도교육감은 신안 교육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보장 △특색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가정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학교 교육의 기본 바탕인 학생 기초기본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해 인공지능(AI) 온라인 콘텐츠 및 통합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산어촌 작은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은 학교(섬 학교) 박람회 운영을 통해 전남형 작은학교 우수모델을



지난달 27일 김대중 도교육감이 신안 교육현장을 방문해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확산하고, 작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도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다양화와 우수강사 확보를 통해 더욱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문화학생 비율(전체 학생의 5.8%)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엄마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엄마 나라 탐방 프로그램 △지역 단위 이중언어 강사 양성 △다문화가정 통합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올해부터 운영하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진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이름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김대중 교

육감은 지난달 27일 신안 지역을 찾아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신안교육지원청에서 일일정책회의를 주재한 후 오후에는 신안교육지원청 새 청사 이전 부지를 둘러보고 압해동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공동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마을학교 활동가들과 함께 한 압해동초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전남 최초로 지자체 연계형 ‘학교돌봄터’ 사업을 진행하는 압해초등학교 및 여타 지역의 마을학교 운영 사례들을 공유했다.

도시지역 학교 간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강화, 농산어촌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에 대한 제안과 요청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이제는 모두가 돌보는 교육이 돼야 하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으로 매력적인 작은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공정·배려·포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광주시교육청, 혁신안 발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광주시교육청이 공정(正)과 배려(情), 혁신적 포용(濔) 정책으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방공무원의 희망과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교육’ 추진의 미래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사혁신 협의회를 구성했

다. 위원 44명이 5개월여 동안 분과별로 10회 이상 협의회를 가지며 분야별 개선 방안을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인사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공정인사 부분에서는 바른(正) 인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 승진 시기를 적극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개선해 한층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개선사항도 마련했다. 매년 선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뿐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5급(사무관) 승진에서도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상향해 업무성과와 정책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현행 역량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배려와 포용 인사 부분에서는 따뜻하고(情) 다같이 편안한(濔) 인사를 통해 인정과 배려가 넘치고 만족도가 높은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한다. MZ세대 세내기공무원들의 빠른 공직적응을 위해 실무수습 제도를 신설하고 직무별 전문 교수요원 양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문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해 조직 내 적응, 관계,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정서적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기람 기자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계획단계 컨설팅

전남도교육청, 목포·여수서 실시
사례 공유·밀착 컨설팅 등 진행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달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목포 신안비치호텔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일반계고 91교 교감 및 업무담당자 182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계획단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컨설팅은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중점 운영 과제 수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학교 현장의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사례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공동교육과



정 운영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 △학점제형 공간 조성 사례 등을 안내했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겠다”며, “특히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학교별로 특색있는 학점제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